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情), 우리성을 중심으로

최 인 재[†] 최 상 진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문화의 인간관계에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정(情), '우리성'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소가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그리고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214명의 대학생과 230명의 고등학생 등 총 44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정(情)의 구성요소(인간적 연약성, 타인배려성, 다정다감성) 중 인간적 연약성은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생활만족도와는 부적의 상관을 나타냈고, 우리성의 구성요소(도구적, 정서적 우리성)는 두 가지 모두 스트레스와 부적의, 생활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문제대응방식(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회피)에 관한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적극적 해결로 가는 변인들의 경로계수에서는 정(情)의 구성요소 중 인간적 연약성(-), 타인배려성(+), 다정다감성(-)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원추구로 가는 경로계수에서는 각각 인간적 연약성과 부적의, 타인배려성과 다정다감성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회피방식은 인간연약성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우리성의 구성요소 중 도구적 우리성은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회피(-)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정서적 우리성은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원추구(+)와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문제대응방식 중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 스트레스와는 부적의 생활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주요어 : 정, 우리성, 문화, 상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최인재는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최 인 재,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전화 : 017-327-3692 FAX : 02-825-9668 E-mail : jae713@hanmail.net

한국 문화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 대별해서 개인보다는 대인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라 할 수 있다(최상진, 1997). 서구문화에 있어 개인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self-contained functional unit) 독특한 완성체(unique solid entity)로서 구성되며, 개인은 부분의 조정은 있으나 본인의 자기(self)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서양의 개인은 개별자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권에서 개인은 완전성을 갖는 개별자라기 보다는 우리라는 사회적 관계단위 속에서의 부분자(partial individual)로서의 성격이 짙다(최봉영, 1994). 따라서 자신의 특성은 '우리'속에서의 자기역할 및 기능에 의해 규정되며, 그것이 자신의 자아구성에서 핵심적 요소가 된다(Choi & Choi, 1990).

한국인에게 있어 인간관계에서 일차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은 '우리성' 집단을 구성하고, 확인하며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불완전 부분자(imperfect partial individual)라는 개인관, 인간관이 서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Markus와 Kitayama(1991)가 말하는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에 가까운 개인관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자신과 공동운명에 있는 또 다른 부분자(partial individual)를 우리관계 속에 포함시킬 때, '자기정체 불충만성'은 줄어들게 된다(최상진, 2000).

여기에서 우리라는 개념은 서양의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內)집단' 개념과 달리 '개인'이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자타간의 경계성이 약화되는 '자아 고(高) 관여적'이며 '탈(脫) 자기적 우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서양의 '우리성'은 집단 안에서 개인의 고유성이 소멸되지 않는 군집(collective pool)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동양문화권 특히 한국에서는 개

인이 집단상황에서 자기의 고유성을 전체집단에 맞추어 변화 순응시키고, 전체에 융화(融和)됨으로써 개인성의 합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집단성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서양의 우리성을 공통성 우리(distributive We-ness)라 한다면, 한국인의 우리성은 단일체적 우리(Collective We-ness)로 특징 지을 수 있다(Choi & Choi, 1990).

한국인에게 '우리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속의 사람들이 동질적인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뜻하며, '우리성' 관계에 포함되지 않은 타인은 '거리가 먼', '비 호의적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이질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최상진, 박수현, 1990).

한국인이 '우리성' 관계에 있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정을 주고받는 또는 정으로 묶여진 관계임을 뜻한다.

정(情)이라는 개념은 서양인의 애정(affection), 사랑(love)과 그 기본 성격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구체적 감정구조와 인지구조의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정은 사랑의 감정 같은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감정 상태라기 보다는 장기간의 접촉과 정에서 이슬비에 옷이 젖듯 잔잔하게 쌓여져서 느껴지는 누적적 감정상태이다. 따라서 정의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그 지속 시간도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훨씬 길다.

또한 정은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 정든 사람들 간의 가까움과 밀착(密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 내적 경험속성이며, 동시에 관여된 두 사람 또는 사람들 간의 친밀·밀착의 정도를 기술하는 준거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대표적인 심리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열규, 1986; 김재국, 1997; 최상진, 최수향, 1990;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최상진(최상진, 최수향, 1990; 최상진, 유승엽, 1995)은 한국인에게 있어 정은 첫째로, 오랜 기간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공동운명성), 두 번째는 상대를 자신처럼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아껴주는 마음),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해 격의 없이 느끼고 상호의 경계가 없어졌을 때(허물없음성), 네 번째로는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내 것 네 것의 구분을 초월할 때(비타산성), 끝으로 함께 오랜 시간이나 세월을 보냈을 때(장기동거성)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 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며 중복적인 측면을 지니는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겠다.

정의 심리 경험적 원형은 한국의 가족 관계적 특성에서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는데, 한국문화의 가족관계는 개인보다는 '우리식구'라는 것이 강조되고, 가족 구성원간에는 끊임없이 동질성, 하나됨, 상호의존, 상호수용을 이상적 관계와 교류의 양식(mode)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인간관계 형태가 가정 밖에서의 사회관계로 확대된 것이 '한국적 정(情)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1997).

이렇게 볼 때 '우리성'과 정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성'은 정이라는 심정적 감정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체감의 인지이며, 정은 '우리성'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감정의 질이다. 정이 없이는 '우리성'이 형성될 수 없으며, '우리성'이 없이는 정도 성립될 수 없다(최상진, 1997).

정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성·정관계의 사람들간에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최상진, 이장주, 1998). 하지만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합리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기 쉬우며, 개인이 희생되

고 집단의 의사가 중시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최상진, 1990).

또한 우리성·정 인간관계에서는 표현된 행위보다는 행위 이면의 '마음(mind)'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 관계에서는 다분히 '오해(誤解)'와 '곡해(曲解)'라는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문화에 있어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불균형이 자연히 큰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소가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7).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응해나가는 방법 역시 한국인들은 주로 인간관계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친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추구하며, 그 다음으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와 같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선·후배 통한 도움을 추구하는 순으로 문제대응방식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서 제시되었다(김의철, 박영신, 1997, 원호택, 이민규, 1987).

또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상담자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가까운 동료가 문제 상황에서 중요한 지지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Youn & Choi, 2001).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격려, 위안, 공감, 대화 같은 정서적 지원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은 조언, 해결방법 제시와 같은 정보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김정희, 1995).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많이 받는 개인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

하며, 생활만족도 더 높았다(김의철, 박영신, 1997, Choi & Kim, 1998).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도움을 주로 가까운 동료로부터 받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한국문화에서 살아가는 개인에게 있어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응요소이며, 한국인들이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다른 연구들을 볼 때에도 이러한 지지 자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Traindis, Leung, Villareal과 Clack(1985)은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내집단의 강한 결속력은 질병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소외와 외로움을 덜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압과 심장병의 발생 빈도도 낮으며(Bond, 1991), 정신질환의 발병률도 매우 낮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Lumsden, 1984).

또한 문제대응방식의 선호에서도 역시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적극적 문제해결과 같은 개인에 초점을 둔 대응보다는 타인의 지원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Jose, D'Anna, Cafasso, Bryant, Chiker, Gein, & Zhezmer, 1998).

물론 개인의 성향이나, 문제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개인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스트레스 경험은 자극에서 반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 개념들을 연구자들은 각자의

학문적 배경과 연구 목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정의를 채택하기도 하고 서로 교환하여 통용하기도 한다(양병환, 1991).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으로 설정하여 문제 대응방식에 따른 결과로서 스트레스와의 관계성을 보고자 한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초기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로 사용되었는데(Eisdorfer, 1981), Selye(1985)는 어떤 새로운 자극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이에 대응하려는 신체적 방어역의 틀, 즉, 일반적 증후군(general adaption syndrome; GAS)으로 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based model of stress)의 개념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취급한다(Cox, 1991). 따라서 어떤 반응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은 동시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nnon(1932)은 스트레스를 추위, 산소부족, 저혈당 등의 조건 하에서 생기는 항상성(恒常性) 유지의 장애라고 정의하였으며, Selye(1985)는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극(stressor)에 대한 반응이 스트레스라 정의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는 크게 신체, 심리, 행동적인 측면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신체적 증상으로는 혈압증가, 호흡곤란, 근육긴장, 위장장애 등이 있고, 둘째, 심리적 증상으로는 분노, 불안, 우울, 집중력의 저하, 의사결정의 곤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는 수행감소, 사고율증가, 알콜중독 증가, 약물남용, 충동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7). 이외에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다른 사람과의 협동의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급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게 화를 내고 폭력적인 행동

하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성·정(情)관계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정이나 ‘우리성’이라는 문화 심리적 요소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대응방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대응 방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그리고 생활만족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구조적 관계성을 탐구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정, 우리성,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가설적 관계성에 대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정(情)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가설적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정 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거나 적절한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해 문제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대응방식 보다는 사회적지원 추구나 회피 같은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경우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혹은 회피방식을 사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생활만족도

는 낮을 것이다.

그림 2는 우리성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가설적 관계성을 나타낸 그림으로 우리성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문제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일수록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덜 경험하고 생활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방 법

표집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서울소재의 C대학과 M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14명(남:111명, 여:103명)과, 강릉시 소재의 4개 남·녀 고등학생 230명(남:115명, 여:115명)등 총 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7세(최소:15세, 최고:19세, $SD=0.81$)였고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1.4세(최소:18세, 최고:34세, $SD=2.88$)이었다. 표집 대상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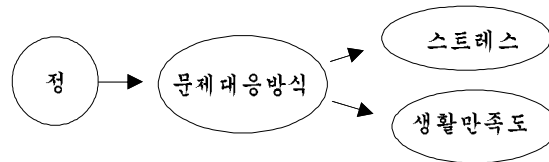


그림 1. 정(情)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가설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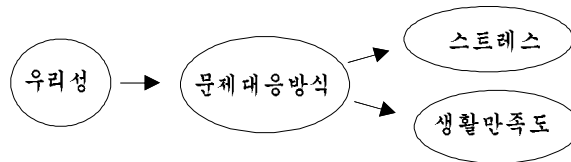


그림 2. 우리성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가설적 모형

표 1. 조사대상

	남	여	합 계
고등학생	115(25.9%)	115(25.9%)	230(51.8%)
대학생	111(25.0%)	103(23.2%)	214(48.2%)
전체	226(50.9%)	218(49.1%)	444(100%)

측정도구

정(情)성향 척도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로 임영식(1993)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전혀 아니다’에서 7=‘매우 그렇다’).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요인 분석하였고, 요인 부하량과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상호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삭제하여, 최종 24문항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었으며, 요인의 회전은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 요인은 문항 16, 27, 3, 21, 23, 9, 19, 26, 4번 등 모두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적연약성’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문항 15, 2, 10, 28, 6, 5, 1, 8, 29번 등이 포함되었고, ‘타인배려성’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문항 18, 20, 30, 24, 17, 7번 문항이 적재되었으며, ‘다정다감성’이라고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와 각 요인들의 설명변량, 신뢰도 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우리성 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리성 성향 척도는 우리

성에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연구(최상진, 1993; 최상진, 박수현 1990)를 바탕으로 최인재(199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처음에 39문항을 구성하였으나 C대학의 10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분석 및 신뢰도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20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20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추출방법을 주성분분석으로 하고 Varimax회전을 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첫 번째 요인은 ‘도구적 우리성’이라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정서적 우리성’이라 명명하였다. 두 요인의 설명변량은 각각 37.98%, 11.12%로서 전체 변인 요인구조의 49.11%를 설명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도구적 우리성’ 요인이 .87 이었고, ‘정서적 우리성’ 요인이 .81로 양호한 신뢰도 계수를 나타냈다.

문제 대응방식 척도

이 척도는 김의철과 박영신(199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회전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에 대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상호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고 최종 17문항을 분석하여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3. 정(情)성향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인간적 연약성				
16.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809		
27.	수용하기 어려운 부탁이라도 잘 거절하지 못한다	.778		
3.	부탁을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775		
21.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725		
23.	미워하는 사람의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한다	.626		
9.	상대방의 입장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	.595		
19.	대인관계에서 손해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511		
26.	마음이 약하다	.510		
4.	싫어하는 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한다	.463		
타인 배려성				
15.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704	
2.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들어준다		.673	
10.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잘 배려하는 편이다		.671	
28.	주위 사람의 고민이나 문제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		.654	
6.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일이 종종 있다		.638	
5.	다른 사람의 일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633	
1.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잘 도와주는 편이다		.632	
29.	주변 사람의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564	
8.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공감을 잘한다		.531	
다정 다감성				
18.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영화를 보면 콧등이 시큰해진다			.811
20.	눈물이 많은 편이다			.762
30.	어떤 일로 인해 서운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548
24.	한 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이 떠나가면 허전함을 느낀다			.484
17.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452
7.	감정이 풍부하다			.436
고유가		6.196	2.994	2.104
설명변량		25.82%	12.27%	8.77%
Cronbach alpha		.85	.83	.69

제 1요인은 ‘적극적 문제해결’이라 명명하였고 (설명변량 25.11%, $\alpha=.82$). 제 2요인은 ‘사회적 지원추구’라 명명하였다(설명변량 16.54%, $\alpha=.78$). 그리고 제 3요인은 ‘회피’라고 요인명을 부여하였

다(설명변량 9.16%, $\alpha=.55$).

스트레스(stress) 척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awte(1972)

표 4. 우리성 성향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도구적 우리성			
7.	가까운 친구를 형제처럼 생각한다	.772	
6.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일처럼 함께 걱정한다	.743	
14.	친한 친구에게는 가족처럼 가깝게 대한다	.730	
5.	친구의 부탁이면 나를 희생해도 들어주는 편이다	.712	
11.	친구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다	.674	
13.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가치롭게 생각한다	.667	
15.	친구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649	
8.	내 주변에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 줄 친구가 많다	.555	
16.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가까운 친구와는 자주 만나야 한다	.494	
18.	친구들에게 정을 많이 주는 편이다	.449	
정서적 우리성			
19.	혼자 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한다		.809
2.	혼자 있는 것 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785
12.	혼자 일 하는 것 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755
3.	외출할 때 혼자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638
20.	친구들과 함께 일할 때 일 보다는 인간관계를 더욱 중요시한다		.566
17.	똑똑한 사람보다는 원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506
1.	가까운 친구와 함께 일을 하면 즐겁다		.488
고유가		4.693	2.006
설명변량		37.98%	11.12%
Cronbach alpha		.87	.81

가 선별하여 사용한 20문항 가운데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한국 학생의 신체적 스트레스 및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심장 통증, 지속적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지속적 피곤, 불면 등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두려움, 불행과 우울, 수줍음, 주변사람들의 괴롭힘, 죽고싶은 충동, 근심걱정 등으로 이루어 졌다.

이 척도 역시 7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척도의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계수는 .83 이었고 신체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2,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척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Taft(1986)가 개발하고 이를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수정한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척도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러 가지 생활영역을 포함하는 7점

척도 (1='매우 불만족'에서 7='매우만족')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일상 생활의 여러 영역들 즉, 자신의 건강, 자신의 외모, 자신의 성격, 교수님과의 관계, 학업성적, 학교생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적인 만족도 등 총 1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한 결과 $\alpha=.85$ 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 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결 과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정(情), 우리성,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간의 차이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문화 심리적 변인인 정, 우리성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t -검정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우리성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우리성과 심리스트레스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으며 정의 하위요인들 중 인간적 연약성($p<.05$)과 문제대응방식 중 적극적 해결($p<.01$), 회피($p<.05$) 그리고 신체스트레스($p<.05$)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고등학생들보다는 대학생들이 문제대응방식에서 보다 문제 중심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덜 경험하며,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고등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성별간 분석 결과에서는 다정다감성($t=-4.67, p<.001$)에서만 여자 집단

표 5.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정(情), 우리성,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t -검증

		고등학생 (SD)	대학생 M (SD)	t
정	인간적 연약성	4.81 (.90)	4.59 (.92)	2.52*
	타인 배려성	4.74 (.77)	4.86 (.77)	-1.62
	다정 다감성	5.11 (.93)	5.16 (.89)	- .50
우리성	도구적우리성	5.10 (.86)	5.11 (.82)	- .19
	정서적우리성	5.23 (1.10)	4.82 (.98)	4.17***
문제대응방식	적극적 해결	4.22 (.94)	4.50 (.95)	-3.01**
	사회적 지원추구	4.83 (1.16)	4.97 (.94)	-1.30
	회 피	3.95 (1.07)	3.70 (.99)	2.54*
스트레스	신체스트레스	3.52 (1.09)	3.29 (1.18)	2.09*
	심리스트레스	3.57 (1.24)	3.07 (1.17)	4.41***
생활만족도		4.32 (.96)	4.43 (.81)	-1.30

주. * $p<.05$, ** $p<.01$, *** $p<.001$

($M=5.33$, $SD=.87$)이 남자 집단($M=4.94$, $SD=.9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다른 변인간의 비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문제대응방식과 정(情), 우리성, 스트레스,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표 5의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문제 대응 방식 중 적극적 문제해결 방식과 정의 하위요인 중 타인배려성, 우리성의 하위요인 중 도구적우리성, 그리고 생활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간적연약성과 심리 스트레스와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원추구 방식은 정의 하위요인 중 타인배려성, 우리성의 하위요인인 도구적우리성, 정서적 우리성 그리고 생활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심리스트레스와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회피 방식은 정의 하위요인 중 인

간적 연약성과 다정다감성 그리고 신체·심리스트레스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도구적 우리성과 생활만족도와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와 정(情), 우리성간의 상관 관계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와 정, 우리성간의 상관관계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있다. 신체스트레스와 인간적연약성, 다정다감성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생활만족도와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심리스트레스와 인간적연약성, 다정다감성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도구적 우리성, 정서적 우리성 그리고 생활만족도와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와 타인배려성, 도구적 우리성, 정서적우리성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

표 5. 문제대응방식과 정, 우리성, 스트레스, 생활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문제 대응 방식		
		적극적 해결	사회지원추구	회 피
정	인간적 연약성	-.20**		.27**
	타인배려성	.21**	.25**	
	다정다감성			.15**
우리성	도구적우리성	.15**	.43**	-.15**
	정서적우리성		.42**	
스트레스	신체스트레스			.13*
	심리스트레스	-.22**	-.19**	.39**
생활만족도		.23**	.21**	-.28**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와 정, 우리성간의 상관 관계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신 체	심 리	
정	인간적연약성	.16**	.30**	-.14**
	타인배려성			.17**
	다정다감성	.20**	.29**	-.11**
우리성	도구적우리성		-.13**	.27**
	정서적우리성		-.11*	.24**
생활만족도		-.27**	-.44**	1.00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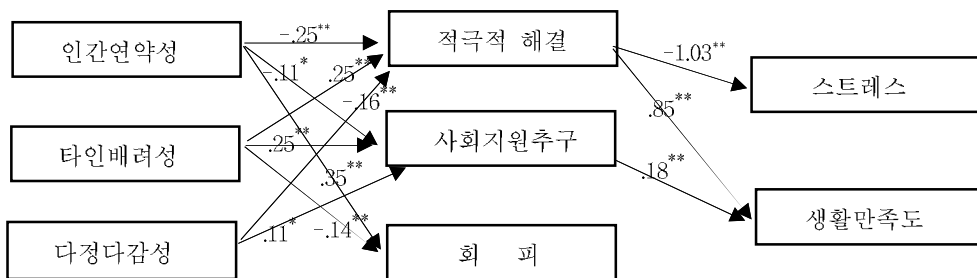
냈고, 다정다감성, 인간적연약성 그리고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情)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경로분석

정의 하위변인들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관계를 밝히기 위해 LISREL의 경로모델(path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 3은 경로분석모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 일반부합치(GFI: Goodness-of-Fit Index),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표준부합치(NFI: Normed Fit Index), 비표준부합치(NNFI: Non-Normed Fit Index)와 원소간의 평균차이(RMR: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사용하였다.

수정전의 부합도 지수는 GFI=0.91, AGFI=0.69, NFI=0.71, NNFI=0.19, RMR=0.09였으며 χ^2 수치는 165.57(df=10, p=0.00)로 좋은 모델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에 따라 수정하였다. 수정결과 부합도 지수는



주. * $p < .05$, ** $p < .01$

그림 3. 정(情)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경로분석

표 7. 정(情)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관계 측정 모델에 대한 부합도 지수

X ²	df	p	GFI	AGFI	NFI	NNFI	RMR
26.31	5	0.00	.99	0.90	.95	.78	0.04

주. GFI-일반부합치, AGFI-조정부합치, NFI-표준부합치, NNFI-비표준부합치, RMR- 원소간의 평균차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적극적 문제해결로 가는 각 변인들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인간적 연약성(-.25, $t=-6.12$, $p<.01$), 타인배려성(.25, $t=5.75$, $p<.01$), 다정다감성(-.16, $t=-3.90$, $p<.01$)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원추구로 가는 경로계수는 인간적 연약성(-.11, $t=-2.20$, $p<.05$)에서 부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며, 타인배려성(.25, $t=4.94$, $p<.01$)과 다정다감성(.11, $t=2.10$, $p<.05$)에서는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회피방식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인간적 연약성(.35, $t=6.95$, $p<.01$), 타인배려성(-.14, $t=-2.92$, $p<.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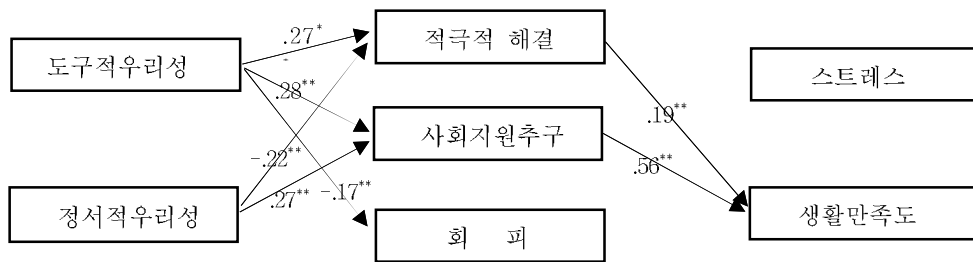
다음으로 문제대응방식에서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적극적 문제해결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계수(-1.03, $t=-4.53$, $p<.01$)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계수는 적극적 문제해결(.85, $t=4.22$, $p<.01$)과 사회적 지원추구 방식(.18, $t=3.71$,

$p<.01$)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의 하위요인들이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로 가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인간적 연약성(.26, $t=6.29$, $p<.01$), 타인배려성(-.27, $t=-6.14$, $p<.01$), 다정다감성(.16, $t=3.88$, $p<.01$) 모두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계수에서도 인간적 연약성(-.22, $t=-5.83$, $p<.01$), 타인배려성(.25, $t=5.94$, $p<.01$), 다정다감성(-.12, $t=-3.02$, $p<.01$)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성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경로분석

그림 4는 우리성의 하위변인들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의 경로모델(path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 * $p<.05$, ** $p<.01$

그림 4. 우리성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경로분석

측정모델의 수정전의 부합도 지수는 χ^2 수치가 자유도 10일 때 178.11로써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어 주는 지수는 다음과 같다(GFI=0.90, AGFI=0.65, NFI=0.69, NNFI=0.15). 또한 원소간의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지수 RMR도 0.11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에 따라 각 측정변인들의 잔차상관 오차를 수정시켜 재분석하였다. 수정후의 부합도 지수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부합도 수치가 1.00에 근접하고 있었으며 RMR도 0.01으로써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우리성의 하위변인들이 적극적 문제해결방식으로 가는 경로계수에서는 도구적 우리성(27, $t=4.85$, $p < .01$), 정서적 우리성 경로계수가 (-22, $t=-4.01$, $p < .01$)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원추구로 가는 경로계수에서도 도구적 우리성(28, $t=5.97$, $p < .01$), 정서적 우리성(27, $t=5.72$, $p < .01$) 모두 정적인 관계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회피방식으로 가는 경로 계수에서는 도구적 우리성(-17, $t=-3.01$, $p < .01$)에서만 유의한 부적인 관계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문제대응방식에서 스트레스,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계수에서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 계수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계수에서는 문제대응방식 하위요인들 중 적극적문제해결, 사회적 지원추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성에서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로 가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계수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계수에서도 도구적 우리성(22, $t=5.92$, $p < .01$), 정서적 우리성(10, $t=2.71$, $p < .01$) 모두 유의한 간접 효과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에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문화 심리적 변인들과 일상생활에서의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식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와 생활만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정의 하위요인들 중 인간적 연약성과 다정다감성은 정의 속성 중 정을 느끼는 당사자의 정 경험성향 즉, 성격특질로서의 정(최상진, 1997)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문제대응방식에서는 비효율적인 대처인 회피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생활만족도 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의 또 다른 속성인 타인배려성은 대상지향적 정(최상진, 1997)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표 8. 우리성과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관계 측정모델에 대한 부합도 지수

χ^2	df	p	GFI	AGFI	NFI	NNFI	RMR
3.14	2	0.21	.99	0.97	.99	.98	0.01

주. GFI-일반부합치, AGFI-조정부합치, NFI-표준부합치, NNFI-비표준부합치, RMR- 원소간의 평균차

인간관계에 있어 성숙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Kim, Youn & Choi, 2001), 이것은 문제 대응방식에서 적극적 문제해결 그리고 사회적 지원추구방식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생활만족도와는 정적인 관계성을 나타냈다.

이것으로 볼 때 앞서 제시하였듯이 정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정 관계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관계적 성숙이 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성'을 살펴보면 우리성의 하위 요인인 '도구적 우리성'과 '정서적 우리성' 모두에서 우리성 성향이 높은 사람일 수록 문제 상황에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며 스트레스는 덜 경험하고, 생활만족도는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한국문화의 특성을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로 규정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을 많이 추구하며 또한 인간관계를 통한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Hofstede, 1991; Lumsden, 1984).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한국문화의 인간관계에서 정(情)-우리성 관계는 하나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시사하는 심리적 건강은 기존의 서양 상담모형에서 강조한 충분히 기능하는 독립된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 맺음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담 연구에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새로운 상담모델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열규 (1986). *한국인 우리들은 누구인가*. 서울: 자유문학사.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김재국 (1997). *한국은 없다*. 서울: 민예당.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69.
- 양병환(1991). 스트레스의 개념. *정신건강 연구*, 10, 한대정신건강연구소. 1-9.
- 원호택,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2-32.
- 임영식 (1993). 핑계 듣는 사람의 특성과 핑계 유형이 핑계 대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호감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일반 이론의 구성*.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발표논문집*, 229-244.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재심리학의 이해*. (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박수현(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 발표 논문집, 69-78.
- 최상진, 유승엽 (1995). 정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5(1), 107-132. 중앙대학교.
- 최상진, 이장주 (1998). 문화심리학의 성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23-529.
- 최상진, 최수향 (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1-9.
- 최인재 (1999). 정(情) · 우리성 · 체면(體面)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심리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ond, M. H. (1991). Chinese values and health: A cultural-level examination. *Psychology and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5, 137-152.
- Cannon, W. B. (1932). *The wisdom of the body*. New York: W. W. Norton.
- Cawte, J. (1972). *Cruel, poor and brutal na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Choi, I. J., & Kim, U. (1998). The relationship among Cheong(情), Stress, Social Support and Life-Satisfaction: An Indigenous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Choi, S. C. & Choi, S-H. (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Cox, T. (1991). *Stress*(9th ed.).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 Eisdorfer, C. E. (1981). Introduction to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 Eisdorfer, D. Cohen, A. Kleiman & P. Maxim (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logy* (pp. 75-176). N.Y.: S.P. Medical & Scientific Books.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Jose, P. E., D'Anna, C. A., Cafasso, L. L., Bryant, F. B., Chiker, V., Gein, N., & Zhezmer, N. (1998). Stress and coping among russian and american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4, 757-769.
- Kim, Chang-Dai, Youn, Inn, Choi, In Jae (2001).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ature Perso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July 10th-13th, Melbourne, Australia.
- Lumsden, D. P. (1981). Is the concept of 'stress' of any use, anymore? In D. Randall(Ed), *Contributions to primary prevention in mental health* Toronto: CMHA.
- Lumsden, D. P. (1984). On assessing and ameliorating the "costs" of social life. In D. P. Lumsden (Ed), *Community mental health in action* Ottawa: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Selye, H. (1985).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A. Monat & R. S. Lazarus (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pp. 17-29), (2nd E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aft, R. (1986). The psychological study of the

- adjustment and adaptation of immigrants to Australia. In N. T. Feather (Ed.), *Survey of Australian psychology : Trend for research*, Sydney : George Allen and Unwin.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V. & Clac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Youn, Inn, Choi, In-jae (2001). Attitudes Toward Counselors and Counseling Processes: A Comparison of Korean Counselors and Colleg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July 10th-13th, Melbourne, Australia.

원 고 접 수 일 : 2001. 1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2. 2. 26

게 재 결 정 일 : 2002. 2. 28

K C I

The Effects of Korean Cultur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Coping Styles,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Centering Around *Cheong* and *Weness*

In-Jae Choi

Sang-Chin Choi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Cheong* and *Weness* on coping styl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culture. A total of 444 students (230 high school students, 214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cales revealed that *Cheong* was composed of three factors (*Humane tenderness*, *Caring others*, *Having much cheong*), *Weness*, of two factors (*Instrumental Weness*, *Emotional Weness*). Coping strategies was consisted of three factors (active problem solving, seek help from others, avoidanc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indicated that Caring others, Instrumental Weness and life-satisfaction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both active problem solving, and seek help from others. On the other hand, Humane tender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voidance coping instead of active problem solving. Moreover, those variables showed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stress but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se results are that Cheong and Weness which exert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 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s and important concept for the understanding of Kore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yl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models for the training of Kore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yle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which positive influence of Cheong and Weness can be maximized.

Key Words : *Cheong*, *Weness*, *Culture*, *Coping Style*, *Stress*, *life-satisfaction*